

“해남 초·중·고생 100% 무상급식을”

해남군내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주민청구에 나섰다.

해남학교 무상급식 전면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성우·한농연 해남군연합회장)는 지난 11일 해남 YWCA에서 군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무상급식 조례제정에 대한 주민청구는 유권자의 10%인 군민 1천300명의 서명으로 가능하며 조례제정이 될 경우에는 해남군 관내 9천여 명의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해남지역에서는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100인 이하 학교 1천600명을 제외한 7천700여명이 유상급식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현재 해남군 관

사회단체 조례제정 요구 주민청구… 서명운동 나서

도교육청 “지자체 50% 지원하면 나머지 지원하겠다”

내 학생들의 연간 평균 급식비 부담은 ▲초등학생 24만4천원 ▲중학생 38만1천원 ▲고등학생 41만9천원 등 총 27억7천만원에 달한다.

운동본부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법과 조례제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는 차별없는 교육복지 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군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달말까지 40개 참여단체가 나서 군민서명운동을 통해 무상급식 실현,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 무상급식 조례 제정,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 청구는 해남군의회에서는 처음 밟았던 것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현재는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가 안된 상태”라며 “주민청구가 들어오면 예산 등의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도 “현재 관내 친환경 농산물 등 급식 예산으로 매년 12억 정도 지원하고 있다”며 “전남도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 지자체의 50%의 예산지원이 따르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확인했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은 현재 장성은 지난 달 21일 의원발의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됐고, 진도군은 조례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의령·남해·하동·합천·거창군 등 5개 군에서 지난해부터 조례를 제정,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영암 남해신사 추계 대제(大祭)

영암 남해신사 추계 대제(大祭)가 지난 14일 시종면 옥아리 마한문 화공원에서 김일태 영암군수와 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고려 현종 원년(1010년)부터 비롯된 남해신사 대제는 강원도 통해의 등해묘, 서해의 황해도 풍천 서해신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신제로 불린다.

〈영암군 제공〉

“영광원전 4호기 안전성부터 확인하라”

현장조사 앞두고 재가동… 주민, 항의집회 등 반발

영광지역 주민들이 정비작업 중 혼연료봉 파손과 열전달완충관 이탈 사설이 발생돼 물의를 일으켰던 영광원전 4호기가 지난 7일 ‘영광원전 안전조사단’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발전이 재개된 데 대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군민대책위 준비모임’은 지난 13일 영광원전 전문 앞에서 ‘영광핵발전소 4호기 가동 규탄대회’를 열고 4호기 가동 즉각 중단과 한국형 핵연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조사단의 안전성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원전 4호

기를 가동한 것은 영광군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동을 허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전측은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기관의 안전심사와 승인을 통해 발전 재개를 결정했다”며 “향후 원전 안전문제에 대해 지역과 소통하고 공동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난대조경수 시설생산단지

강진 국내 최대 규모 조성

강진에 국내 최대 ‘난대조경수 시설생산단지’가 들어선다.

산림청은 2010년도 산림작물 생산 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강진군에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0만㎡ 규모의 전국 최대 ‘난대조경수 시설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생산단지에서는 선진 수목 생산 시스템을 활용한 컨테이너(용기) 시설재배를 통해 오는 2011년부터 연간 100만 그루 이상의 난대조경수 묘목을 생산하게 된다.

그동안 난대수종은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해안지방 등지에 주로 분포했으나 지구온난화로 내륙에서도 잘 적응해 자라는 추세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나주 ‘생계 위기 가정’ 돋기 호평

市 민생안정지원팀 운영… 기초수급 못받은 가정 도와

나주시가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정의 복지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생안정지원팀’을 운영, 호평을 받고 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경제위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정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 받을 수 없는 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계가 곤란한 400가구의 집을 직접 방문, 확인 절차를 거쳐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4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400가구의 경우 생계가 막막할 정도

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민생안정지원팀’은 지난 4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 받을 수 없는 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계가 곤란한 400가구의 집을 직접 방문, 확인 절차를 거쳐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4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400가구의 경우 생계가 막막할 정도

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했다.

나주시는 ‘민생안정지원팀’을 구성한 후 현재까지 2천777가구를 한시생계보호 가구로 선정, 이 가운데 2천 453가구는 연말까지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은 복지사는 “주식 명절에 쌀이 떨어진 가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속하게 쌀과 생선, 과일 등을 지원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저 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제8회 농업박람회, 75% ‘잘했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 품질·신용서 높은 점수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대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박람회 기간 동안 관람객 1천244명을 대상으로 박람회 선호도 등을 조사한

결과 전시물, 판매물 안내 등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 개별정보와 대회 만족도, 농산물 구입관련 정보, 불편사항 및 제안 등 총 13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설문조사는 광주·전남(58.6%)의

40~50대 (48.7%), 도시 주부 (30.81%)가 참여해 농업박람회 참여만족도는 ▲만족(74.9%) ▲보통(21.9%) 불만족(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람객 중 81.3%가 농산물을 구입했고, 구입동기로는 품질이 좋아서(42.4%), 믿을 수 있어서(37%)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불편사항으로는 교통문제와 주차장 등이 지적돼 앞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송기통기자 song@

“두드리세요! 해결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 26일 담양서 ‘이동신문고’ 운영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군민은 ‘이동 신문고’를 두드려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6일 담양군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현장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 신문고’는 농림·환경을 비롯해 건축, 도로, 교통, 산업, 재정세무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 13명으로 꾸며진다.

이들은 경제불황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 기업과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동이 불편해 상당장에 나오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민과 지자체,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견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대인동삼일부동산

☎ (0)2-1140-5210 웹 011-802-2522
(광주은행 신본점보, 대인동 소방서간판네)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 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FAX) 383-5221 웹 011-8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60평 경 4,500평(매기 210㎡)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 60평 경 750평(매기 98㎡)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월자 12억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 토지 1,000평(업무용지)-매기 평당 750만원
평당 300만원(미트, 예상장 등 적용)
- 250평(유용기능)-매기 평당 1,200만원
평당 500만원(상업지역)-매기 평당 1,200만원

기타용도

- (농장) 등산용 약 2만2천평 평당 12만원
• (농지) 산간을 대리면 약 3,000평
평당 300만원(미트, 예상장 등 적용)
- (온·주거지) 등 2,000평 평당 450만원
평당 350만원(미트, 예상장 등 적용)

상가매매(상무지구, 상무역세권)

- 상가 150평(9층) 매매기 평당 450만원
학원, 복서실, 사무실 등 적용
- 세정 이용(주변역) 예상권 상가 있음
대형의류매장(가정) 전용상당 환경

부동산 교환상담 환영

-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거나 전화 주십시오★

금산공인중개사

T. 581-5688 H. 011-801-5354
(금호동 서광주 역 건너, 2순환도로)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위 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대 지

약 2850㎡, 가격 협의(임대가)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